



그룹 방탄소년단(왼쪽부터 진, 정국, 지민, 뷔, 슈가, 제이홉, RM)이 16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2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글로벌 인기를 과시했다. 사진제공 | 빅히트뮤직

BTS, 빌보드 뮤직어워즈 3관왕

'6년 연속 수상에 역대 최다 트로피!'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대중음악상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 3관왕을 차지하며 6년 연속 수상했다. 지금까지 이 시상식에서 받은 트로피만 12개로, 그룹으로 받은 역대 최다 기록이다.

방탄소년단은 16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서 '톱 듀오/그룹'(Top Duo/Group),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Top Song Sales Artist), '톱 셀링 송'(Top Selling Song)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 2017년 '톱 소셜 아티스트' 수상 이후 6년 연속이다. 또 '톱 듀오/그룹' 부문에서

는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상을 받았다. 영국의 보이밴드 원디렉션과 더불어 최다 수상 기록이다.

지난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 등 두 곡이 '톱 셀링 송' 부문에 동시 노미네이트되는 등 올해 BBMA에서 모두 6개 부문 7개 후보로 오른 방탄소년단은 '톱 빌보드 글로벌 아티스트/미국 제외'(Top Billboard Global Artist Excl. U.S.), '톱 빌보드 글로벌 송/미국 제외', '톱 록 송(Top Rock Song)' 등 3개 부문에서는 수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이 남긴 기록은 빌보드 역사에도 남을 만하다. 이날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받은 BB

'톱 듀오/그룹'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셀링 송' 부문 6년 연속 수상...그룹 누적 트로피수 12개 역대 최다

MA 트로피는 ▲2017년 '톱 소셜 아티스트' ▲2018년 '톱 소셜 아티스트' ▲2019년 '톱 소셜 아티스트', '톱 듀오/그룹' ▲2020년 '톱 소셜 아티스트' ▲2021년 '톱 듀오/그룹',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소셜 아티스트', '톱 셀링 송' 등 모두 12개이다. 그룹으로 받은 누적 트로피로는 역대 가장 많다.

매년 시상식에 참석했던 이들은 올해에는 아쉽게 자리하지 못했다. 6월 10일 전 세계 동시 공개할 새 앨범 준비에 한창이기 때문이다. 대신 공식 SNS를 통해 "저희 음악을 사랑해주신 전 세계 아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스포츠동아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www.sportsdonga.com

이경훈, 약속의 땅에서 '한국인 첫 PGA 2연패'



AT&T 바이런 넬슨 역전우승·통산 2승

12번 홀 이글·13번 홀 버디로 승기
스피스 등 세계정상 선수들 따돌려
2연패 이상도 전설들 이어 4번째
한국선수 6번째 PGA 다승 대열에
“이곳은 신이 도와주는 것처럼 편해”



이경훈(31)이 짜릿한 역전 드라마로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하며 한국인 최초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1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2)에서 열린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910만 달러·116억4000만 원)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7개를 묶어 9언더파 63타를 쳤다. 최종합계 26언더파 262타를 기록하며 조던 스피스(미국·25언더파)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163만8000달러(21억 원)를 품에 안았다. 우승 직후 발표된 세계랭킹에선 지난 주 88위보다 무려 47계단이나 오른 41위에 랭크됐다.

지난해 5월 이 대회에서 2018년 PGA 투어 데뷔 이후 첫 승 감격을 누린 이경훈은 대회 2연패와 통산 2승을 수확하며 최경주(8승), 김시우(3승), 양용은, 배상문, 임성재(이상 2승)에 이어 우리 선수로는 6번째로 PGA 투어 다승의 영광을 안았다. 더불어 한국인 최초 PGA 투어 타이틀 방어라는 신기원도 열었다.

1944년 창설된 이 대회에서 2연패 이상을 달성한 선수는 1958년 샘 스니드, 1971년 잭 니클라우스와 1978년부터 1980년까지 3년 연속 우승한 톰 왓슨(이상 미국) 등 '골프 레전드'들에 이어 이경훈이 4번째

AT&T 바이런 넬슨 최종 순위 (파72)			
	이름	스코어	라운드별 타수
우승	이경훈	26언더파 262타	64-68-67-63
2위	조던 스피스(미국)	25언더파 263타	67-65-64-67
공동 3위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24언더파 264타	67-66-69-62
	세바스티안 뮤노스(콜롬비아)	24언더파 264타	60-69-66-69

※ 스코티 세플러(미국) 19언더파 공동 15위, 김주형 18언더파 공동 17위

다. 아울러 2019년 강성훈(35)에 이어 코로나19로 무산된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이경훈이 패권을 지키며 AT&T 바이런 넬슨은 최근 3개 대회 연속 한국 선수가 우승하는 각별한 인연을 이어갔다.

무서운 집중력이 돋보였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6위였던 이경훈은 6번(파4) 홀까지 버디 4개를 몰아치며 단숨에 1위 싸움에 가세했다.

승부처는 12번(파5) 홀이었다. 221m 거리에서 친 세컨 샷을 홀컵 1.5m에 붙여 이글에 성공해 처음 단독 1위로 치고 나갔고, 이어진 13번(파4) 홀에서도 4.5m 버디 퍼터를 떨고 2타 차 선두로 도망갔다.

텍사스 출신 '전 세계랭킹 1위' 스피스를 비롯해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젠더 쇼플리(미국)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추격 속에서도 이경훈은 안정감을 잃지 않았다. 17번(파3) 홀에서 파 세이브에 성공한 뒤 18번(파5) 홀에서 팀인 버디로 26언더파를 완성하며 이 홀에서 버디를 잡은 스피스를 결국 1타 차로 따돌렸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 이후 작년 7월 3M오픈 공동 6위가 유일한 '톱10'일 정도로 슬럼프에 빠졌던 이경훈은 '약속의 땅' AT&T 바이런 넬슨에서 다시 포효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마치 신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것처럼 이곳에만 오면 항상 마음이 편하다"는 그는 "부모님, 아내,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승을 해 너무 기쁘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 이경훈 인터뷰 2면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며 새 역사를 썼다. 이경훈이 1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에서 열린 AT&T 바이런 넬슨에서 2년 연속 우승에 성공한 뒤 챔피언 트로피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작은 사진은 부모님과 함께 우승을 자축하고 있는 모습. 매키니(미 텍사스주) | AP뉴시스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